

20세기 초 한국어 문법서의 조동사 기술 개관

- 『韓語通』·『韓語文典』·『韓語研究法』을 중심으로 -

신효련*

|| 차례 ||

- I. 서론
- II. 연구 대상과 관련 연구
- III. 조동사의 개념과 구성 비교
- IV. 조동사의 기술 양상 대조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초에 일본인이 기술한 한국어 문법서에 쓰인 ‘助動詞’의 개념과 문법적 기능을 대조한 연구이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쓴 국어 문법서에서 한동안 나타나다가 점차 다른 범주로 대체되게 된 조동사의 기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국어문법사의 한 부분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당시 사용된 조동사라는 개념은 서양의 문법 연구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법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 관계에 놓인 일본인 저자의 한국어 문법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은 『韓語通』, 『韓語文典』, 『韓語研究法』은 모두 1909년에 출간된 책인데, II장에서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선정 이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III장에서는 세 권의 문법서에서 조동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각 책에서 조동사가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졌는지 전체 체계 내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다. IV장에서는 각 책의 세부 기술 사항을 살피고, 그 기술 내용을 대조하였다.

주제어 : 20세기 초 한국어 문법서, 조동사, 『韓語通』, 『韓語文典』, 『韓語研究法』

1. 서론

이 글은 20세기 초에 일본인이 기술한 한국어 문법서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이른바 ‘助動詞’ 류의 개념과 쓰임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한국어 문법서의 가장 큰 특징은 품사를 중심으로 문법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²⁾ 이로 인하여 문법서 내 장절 구성도 품사 분류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각 장은 개별 품사의 특성과 용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품사 중 특히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주축을 이루는 책이 많다.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사용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조동사’이다.³⁾ 현대 국어문법 연구에서는 용언의 활용과 관련하여 서

1) 저술 의도를 고려하면 문법서이자 학습서, 학습서이자 문법서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우선 책을 기술한 저자의 의도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위해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 대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 김주상(2020: 31)에서는 20세기 초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기술된 문법서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은 품사론과 문장론이 실린 것이며, 대부분 품사론의 분량이 많고 문장론의 분량은 적은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고정민(2012)와 이전의 다른 관련 연구에서도 이 시기에 외국인에 의해 간행된 많은 교재가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품사를 위주로 한 문법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사실 당시 외국인 저자가 쓴 한국어 학습서는 학습서와 문법서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 따라서 같은 책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학습자를 염두에 둔 문법서라고 보며, 다른 편에서는 학습서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법, 시제, 양태, 논항, 결합 관계 등을 다루며 ‘조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용언의 설명과 활용에 관하여 기술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동사라는 개념이 문법서에서 활발하게 쓰인 이유는 외국의 문법서, 특히 일본 문법 연구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동사라는 개념은 한국어 문법 설명을 위해 사용될 당시에도 각 연구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유형의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를 지칭하는 말도 ‘조사’나 ‘조동사’, ‘어미’ 등으로 일치가 되지 않았다. 이 조동사라는 용어는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기술된 한국어 문법서에서 나타났다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존재 자체가 당시에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이후 사라진 개념이지만, 조동사는 용언과 관련된 문법범주를 정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20세기 초의 문법서는 기술 주체에 따라 내국인에 의한 것과 외국인이 쓴 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2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격동의 시기였다. 국어학사 기술에서는 갑오경장이나 개화기를 기준으로 국어의 연구가 이전의 연구와는 변별되는 ‘근대국어연구’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바라보고 있다.⁴⁾ 이 근대적 연구 방식은—국어 연구의 자생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김석득(2009: 281)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약적’인 것으로서 외국

3) 활용과 관련하여 ‘어간’과 ‘어미’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당시 문법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간’이나 ‘어미’라는 용어는 현재 국어문법을 기술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많다. 또한 어간이나 어미에 해당하는 형태를 다른 용어로 지칭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다룰 ‘조동사’도 그중 하나인데, 이 ‘조동사’에는 어미 외에도 보조용언이나 조사 등의 여러 문법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4) 유창균(1959/1988), 김윤경(1963), 김민수(1964), 김석득(2009)은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근대 언어학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 강신항(1987)과 김완진(1997)에서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근대적 국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인이 저술한 문법책과 새 사조의 물결로 인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서양과 일본의 문법 연구에 영향을 받아 언어의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문법에서도 품사를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근대적 한국어 문법 연구에 관한 기틀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손에서 동시에 마련된 만큼, 당시 문법 연구의 실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영향 관계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문법서 세 권에서 ‘조동사’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비교, 대조하여 20세기 초의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조동사의 기술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과 관련 연구

현대국어문법 기술과 비교할 때 이 시기의 품사 분류에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다수의 문법서에서 조동사를 기술한 것이다. 당시 사용된 조동사라는 용어는 현대 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보조동사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auxiliary verb의 특성과 같지도 않았다. 이는 근대적 국어 연구가 시작되면서 외국의 문법 연구에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서, 20세기 초의 국어 문법서에서 등장했다가 점차 다른 범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 문법서에 등장한 조동사는 용언의 의미를 완성하거나 의미를 첨가하는 말로서 주로 용언 어휘 자체의 의미와는 별개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명사나 형용사, 동사에서 어휘적 의미를 지닌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떼어

조동사로 묶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조동사’라고 기술된 형태를 현재 국어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나 보조용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20세기를 거치며 근대적인 방법의 문법 연구가 점차 발전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조동사로 기술된 것들이 점차 따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언과 관련된 문법범주의 기술도 달라졌다. 따라서 조동사의 기술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문법 기술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본어 문법에서 조동사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김은주(2010)에서는 조동사를 전통적 분류인 ‘テニオハ’ 류에서 독립된 품사로 옮겨 세운 것이 大槻文彦(1897)라고 하였다. 에도와 메이지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문법 연구는 근대적인 어학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언어의 문법 체계를 번역하면서 옮기는 일은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방식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서양어와 일본어의 차이로 인해 서양 문법서에서 사용한 조동사의 개념을 일본 문법서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서양의 품사 체계를 따른 연구는 서양어에서 조동사가 동사를 보조하여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돕는다는 점을 일본어에 대입시켜 조동사를 동사의 하위 부류로 보고자 하였으나 언어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⁵⁾⁶⁾

5) 김은주(2010: 64)에서는 그 문제를 “1) 품사 분류에 형태소 분류와 단어 분류의 양쪽이 섞이게 한 것, 2) 단어의 형태적인 완결과 독립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6) 오오이 히데아끼(2017: 125)에서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조사나 조동사 분류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하

조동사와 동사의 활용을 언급한 문법서 중에 한국인이 쓴 초기의 책은 유길준의 문법서일 것이다. 유길준이 1897~1904년 사이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문전』과 동명의 1904년, 1905년, 1906년에 집필된 책, 그리고 1904~1907년 사이에 유인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문전』, 동명의 1908년 인쇄본에서 ‘조동사’에 대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⁷⁾ 이 책들에서는 ‘동사는 조동사의 도움(協附)을 얻어 그 활동하는 작용을 나타내니, 조동사는 역시 동사의 일종으로 동사의 의미가 부족한 곳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조동사의 의미를 정리하였고, 각 책의 기술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정의는 보조동사에 대한 풀이 같지만 주로 현대국어의 어미에 해당하는 형태를 다루고 있다. 모두 조동사를 동사 아래에서 기술하였는데, 이후 1909년에 출간된 『대한문전』에서는 조동사를 독립시켜 하나의 어종(語種)으로 다루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유길준의 문법서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에 의해 기술된 한국어 문법서에서도 조동사와 용언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 나타났다.

당시 한국어 문법서에서 기술된 조동사의 개념은 서양 문법을 흡수한 동시기 일본 문법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시모토는 조사, 조동사는 단어로 인정하여도 품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	대표 학자
(1) 조사, 조동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	마쓰시타 다이자부로우(松下大三郎), 모리오카 켄지(森岡健二)
(2) 조사는 단어, 조동사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
(3) 조사도 조동사도 단어로 인정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7) 순서대로 『역대한국문법대계』 ①01, ①105, ①02, ①03, ①04, ①05을 가리킨다.

서 이 시기에 일본인이 기술한 한국어 문법서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사용된 조동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어 문법서 중에서 조동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의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택한 연구 대상은 한국어의 문법 체계 전반을 살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법서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韓語通』(이하 『한어통』),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韓語文典』(이하 『한어문진』)과 야쿠시지 지로[藥師寺知囀]의 『文法註釋韓語研究法』(이하 『한어연구법』)이며, 모두 1909년에 출간된 책이다. 이전에 일본인 저자가 쓴 한국어 문법서에서도 동사의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룰 세 권의 책과 같이 활용과 관련된 문법범주에 대하여 문법적 설명을 하고 있는 문법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근대적 문법서인 호세코 시게카쓰[宝迫繁勝]의 『韓語入門』(1880)에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문법 기능에 따른 기술이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의 음의 변화에 따른 분류이고, 그 내용도 문법적 설명 없이 예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법범주를 인식하여 활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해, 같은 저자의 『日韓善隣通語』(1880)에는 ‘常語三等之別’ 아래 상등, 중등, 하등 3등급으로 높임법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命令語并問語’에서 명령문과 의문문의 예를 제시하였지만 문법적 설명은 없다. 안영중의 『韓語』(1906)에서는 ‘조동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동사의 활용에 대한 기술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套語’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투어 ‘오’의 연체법과 종지법에 따라 동사의 활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식 문법을 따른 것이며, 연체법은 관형사형을 뜻하고 종지법은 종결형을 의미한다. 종지법은 다시 ‘問’과 ‘答’으로 형태를 분류하였고 현재, 과거, 미래의 3종류의 시제를 제시하였다. ‘조동사’는 여기에서 투어 ‘오’가 명사를 이을 때

에는 독립동사의 구실을 하지만, 동사를 이을 때에는 ‘조동사’의 구실을 한다고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오’의 조동사적 연체법과 종지법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어통』, 『한어문전』, 『한어연구법』과 비교하여 볼 때 문법 체계에 대해 정밀하게 기술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1880년 『한어입문』이나 『일한선린통어』 이후 1909년까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서나 학습서가 출간되었지만 나름의 문법 체계와 설명을 갖춘 최초의 책은 『한어통』, 『한어문전』, 『한어연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자료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교재사나 학습서 연구, 품사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경민(2012)에서는 역학 중심 교육기인 1870년 이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다룬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한어문전』, 『한어연구법』, 『한어통』을 근대 태동기의 문법 중심의 교재로 보고, 문법범주에 따라 정리하였다. 정세환(2010)에서는 『한어통』의 동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는데, ‘相’을 ‘aspect’가 아니라 ‘voice’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法’에 대해서는 大概文法에서 동사 어기의 변화에 주목하여 법을 분류하듯이 한국어 문법에서는 어근과 결합하는 어미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 ‘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술에 따르면 『한어통』의 ‘법’은 문법적 기능보다는 형태적 변화에 따른 것이며, 그 가운데 의미나 기능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영민의 연구에서도 ‘상’과 ‘법’을 보는 관점이 유사하다. 윤영민(2016a)에서는 『한어통』의 품사 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 책에서 사용하는 ‘相’이 ‘voice’에 가깝다는 점과 ‘法’이 ‘mood’와 ‘동사의 활용 방법에 따른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윤영민(2016b)에서도 앞의 연구와 같이 『한어문전』의 품사와 시제, 법, 상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법’은

‘mood’이고, ‘상’은 ‘voice’라고 보았다. 문장종결법과 부정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14종의 서법 항목이 기술되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세 권의 책에서 조동사의 개념과 문법 기능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대조하고, 이를 통하여 20세기 초의 문법 체계, 특히 용언과 관련된 문법범주의 특징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I. 조동사의 개념과 구성 비교

1. 각 책에 쓰인 조동사의 개념 개관

여기에서는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 『한어통』에서 조동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품사를 중심으로 하여 문법 체계를 기술하였으며, 전체 내용 중 용언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한어문전』에서 용언 기술 부분은 전체 234쪽 중 136쪽으로 약 60%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며, 『한어연구법』에서는 부록을 제외하고 전체 270쪽에서 96쪽으로 1/3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한어연구법』의 앞부분에서 음운에 대한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품사 기술 부분만을 두고 보았을 때 용언이 차지하는 비중(43%)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어통』은 전체 363쪽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기술한 부분이 총 178쪽이어서 전체 책의 절반 정도가 용언에 관한 내용이며, 앞부분의 성음과 뒷부분의 회화례를 제외하면 품사 기술에서 용언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들 책이 간행되기 전에도 용언이나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전의 한국어 학습서

나 문법서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우는 드물다. 이 책들에서는 용언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문법범주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실현하는 요소가 바로 조동사였다.

아래의 표는 각 문법서의 품사 분류를 책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어문전』과 『한어통』에서는 10품사(品詞) 혹은 10어사(語辭)를 명확히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한어연구법』에서는 책의 목차와 장의 구성을 통해 8개의 품사를 세웠다고 추정했다. 다른 두 책에서 대명사와 수사를 따로 세웠지만, 『한어연구법』에서는 대명사와 수사를 명사의 일종으로 보고 명사 아래에서 다루었다.

〈표 1〉 각 책의 품사 분류

	한어문전	한어연구법	한어통
1	명사	명사	명사
2	대명사	동사	수사
3	수사	형용사	대명사
4	형용사	조동사	동사
5	동사	조사	형용사
6	조동사	부사	부사
7	부사	접속사	접속사
8	접속사	감동사	감동사
9	감탄사		弓爾波
10	조사		조동사

조동사는 세 권의 책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에서는 조동사를 독립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지만, 『한어통』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의 절 안에서 이들 품사와 연관 지어 기술하고 있다. 즉, 조동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보다는 동사나 형용사에 어떤 형태로 붙는지와 그 문법범주 아래에 문법적인 뜻을 표현하는 요소

로서 다루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의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이 책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에서는 독립된 조동사 장에서 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⁸⁾

“조동사라는 것은 체언 또는 용언, 특히 용언에 부속하여 그 의미를 완성하고, 혹은 의미를 더하는 말(詞)이다.”(『한어문전』, pp.126~127)⁹⁾

“조동사는 동사의 변화의 그 뜻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그 아래에 붙어, 더불어 종종 그 의의를 더하는 말(語)이다. …(중략)… 조동사는 또한 명사, 형용사에 붙는 것도 있다.”(『한어연구법』, p.129)¹⁰⁾

이를 보면 두 책의 조동사에 대한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결합하는 요소로 체언과 용언 또는 동사와 명사, 형용사를 들고 있는 점이 같다. 조동사가 명사에 붙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 조동사가 명사의 서술적 용법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한어문전』에서 체언에 붙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서술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 것이다. 현재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라 하는 ‘이’가 어떠한 요소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서 따로 없고, 체언은 별도로 ‘이჻’을 취한 후에 조동사를 연결한다는 기술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한어문전』, p.33).¹¹⁾ 한편 『한어연구법』(p.138)에서는 ‘이’를 받침이 있는

8) 『한어문전』에서는 조동사를 詞로, 『한어연구법』에서는 語로서 기술하였지만, 여기에서 조동사의 기술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9) 助動詞とは、體言又用言、殊に用言に付屬して其の意味を完成し、惑はある意味を添ふる詞なり。

10) 助動詞は動詞の變化の其意を盡さざる助けんが爲に、其下に附きて、更に種々の意義を添うる語なり。…中略… 助動詞は又た名詞、形容詞に附くものあり。

명사에 쓰이는 ‘조음(助音)’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두 책 모두 서술격조사 ‘이다’는 단지 조동사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음으로서만 인식한 듯하다. 또한 둘 다 조동사의 역할을 체언이나 용언에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때의 의미란 문법적 의미의 실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실 모호하여서 현대 국어문법에서 사용하는 어미나 조사 또는 보조용언 어느 것에도 들어갈 수 있는 풀이라고 볼 수 있다. 『한어문전』에서 조동사로 제시한 예는 ‘나요, 그 사름이엿소, 회겻소, 업서지겻소, 가는 사름’에서 쓰인 ‘요, ㅅ소, 겻소, 지, 는’이다. 현대 국어문법으로 본다면 ‘보조사,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종결어미,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 종결어미, 전성어미’로 볼 형태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동사라는 범주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어연구법』에서는 ‘본다, 보오, 먹소’의 ‘다, 오, 소’, ‘보았다, 보겻다, 보아라’의 ‘앗다, 겻다, 라’등을 조동사의 예로 제시하였다. 『한어문전』과 유사하게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 형태를 조동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어문전』에서 조동사로 본 ‘는’을 『한어연구법』에서는 ‘어미’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 쓰인 ‘어미’는 용언에서 어근을 제외한 활용하는 부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어근과 ‘조동사, 명사, 조사’ 사이에 있는 ‘ㄴ, 는, 어, 아’등을 말하는 것으로, 태나 시제, 등급, 어근의 음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을 뜻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조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의미의 조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
- 11) 체언의 의문법의 경우,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이요’, 받침이 없는 말에는 ‘요’가 붙는다고 하였고, ‘ㄹ닛가(임닛가)’, ‘오닛가(이오닛가)’를 조동사로 제시하고 있다. 지정의 조동사로는 ‘다’와 ‘요’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받침이 있는 체언에는 ‘이’를 붙인 다음에 조동사를 연결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때의 ‘요’는 해요체의 ‘요’가 아니라 하오체의 ‘오’로 보는 것이 시제의 체계상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를 ‘나요’, 과거를 ‘내엿소’, 미래를 ‘나겻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는 ‘서, 고, 며, 다가, 먼, 거든, 즉, 데’ 등과 같은 연결어미 혹은 연결어미의 일부분을 동사나 형용사 또는 조동사에 잇는 ‘조사(助辭)’라고 보았다. 따라서 ‘ㄴ즉’과 같은 표현을 만들기 위해 ‘즉’이라는 ‘조사’에 ‘ㄴ’이라는 ‘어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태(態)에 따른 ‘어미’ 변화의 예로 종지태 ‘선다’의 ‘ㄴ’, 형용태 ‘서는 것’의 ‘는’, 명령태 ‘서어라’의 ‘어’ 등을 들고 있다. 시(時)에 따른 변화로 현재격 ‘본다’의 ‘ㄴ’를 들었고 과거격과 미래격의 변화는 조동사에 따른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등급에 따른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하어(對下語) ‘간다’의 경우에만 ‘ㄴ’을 ‘어미’로 보았고 나머지 등급의 변화는 조동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¹²⁾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현대국어문법에서 보통 어미의 일부나 전성어미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각 조동사의 세부적인 문법 구성을 분석해보면 어미나 조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동사, 보조용언까지 다양한 문법 형태를 조동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어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동사를 따로 기술한 장이나 그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 부분에서 조동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김민수(1960: 259)에서는 『한어통』에서 조동사와 어미를 구별하여 기술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형태를 조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미라고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때의 어미는 문법 용어라기보다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말의 끝’ 혹은

12) 명사의 경우에는 수사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날짜에 사용되는 수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호로’, ‘잇홀’과 같지만 ‘날’과 함께 쓰일 때는 ‘쵸호론날’, ‘쵸잇혼날’과 같이 앞의 일칭(日稱)의 어미를 바꿔서 형용사의 형용태로 하고, 아래에 ‘날’을 붙인다고 하였다(“又何月何日と云ふ時の日稱には前例日稱の語尾を變じて形容詞の形容態と爲し、下に日を附す”). 이때의 어미도 단순한 말끝이 아니라 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날말의 끝’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사의 직설법 부분에서 “직설법은 어미에 ‘다’를 첨가한다”(165쪽)라든가¹³⁾ 의문법 부분에서 ‘느가’를 ‘의문 어미’(173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어미에 의한 각종 표정법(語尾によりてなざるゝ各種の表情法) 부분에서는 “여러 표정법(表情法)은 직설법, 의문법, 명령법의 끝(終尾)에 사용하는 조동사 ‘다, 라, 느냐, 느가, 어라’ 등을 다른 조동사로 바꾸는 것으로 표현된다”(206쪽)¹⁴⁾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어통』에서는 ‘다, 라, 느냐, 느가, 어라’ 등의 종결어미를 조동사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미’는 여기에서 쓰인 종미(終尾)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또한 『한어문전』과 같이 ‘느’, ‘ㄴ’을 조동사라고 보았다.¹⁶⁾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세 권의 책이 비록 세부 항목에서는 각각 그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동사의 뜻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13) 直說法は語尾に「다」を添加す。

14) 種々の表情法は直說法、疑問法、命令法の終尾に用いる助動詞다, 라, 느냐, 느가, 어라等を他の助動詞に改むるこによりて云ひ表はさる。

15) 이는 『한어문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17쪽)로 전성명사를 설명할 때에 ‘형용사에서 명사를 전성하는 데에는 형용사의 본래형의 어미에 ㅁ(음) 또는 기를 첨가한다’든가 ‘동사에서 전성시킨 명사도, 형용사에서 한 것과 같이, 동사의 본형에 ㅁ 또는 기를 어미로서 첨가해 만든다’고 한 부분에서 ‘어미’라는 용어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어미’도 어근을 제외한 활용되는 부분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말의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동등한 사람과의 대화에 사용하는 경어는 ‘오’ 또는 ‘소’(자음에 붙을 때)를 사용하고 직설법의 ‘다’, 의문법의 ‘느냐’, 명령법의 ‘어라’를 대신하는 것으로 다음 경우에 직설법 현재의 ‘느’, ‘ㄴ’의 조동사도 역시 생략한다(『한어통』 207쪽).

<원문> 同等の人との對話に用ゆる敬語は「오」及び「소」(子音に接するとき)にして之を用いて直說法の「다」疑問法の「느냐」命令法の「어라」に代ゆるものなり此場合に直說法現在の「느」「ㄴ」の助動詞も亦た省かる

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각 문법서에 쓰인 조동사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동사가 기술된 부분의 구성 비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동사는 책에 따라 단독으로 기술된 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에는 조동사 장이 있고 『한어통』은 그렇지 않지만, 동사와 형용사 부분에서 조동사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한어문전』은 어미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형용사, 동사, 조동사를 하위 품사로 설정하였다. 전체 총 6편 중 체언을 제2편, 용언을 제3편에서 다루었는데,¹⁷⁾ 그중에서 조동사와 관련된 기술은 제2편의 제4장 ‘체언과 조동사(體言と助動詞)’와 제3편 용언의 전반에서 나타난다. 용언 편에는 조동사 자체 그리고 형용사, 동사와 조동사의 어울림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용동사 및 존재사와 함께 쓰이는 조동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어연구법』에서는 명사 장에서 조동사의 쓰임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동사나 형용사 장에서 조동사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한어문전』과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기능을 단독으로 기술한 장이 있다. 다른 책과의 차이는 조사(助辭) 장에서 제2류의 조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조동사에 이어지는 조사를 분류한 것인데, 조동사와 조사의 연결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어통』에서는 조동사를 단

17) 이 외의 다른 편은 제1편 언문과 성음(諺文及聲音), 제4편 부사(副詞), 제5편 접속사, 감탄사 및 조사(接續詞、感歎詞及助詞), 제6편 문의 조직(文の組織)이다.

독으로 다루지 않고 동사, 형용사 장에서 함께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책에서 조동사가 기술된 부분을 책의 구성에 따라 대략 살펴보았는데,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조동사가 기술된 부분의 목차

한어문전	第二編 體言 第四章 體言と助動詞 第三編 用言 第一章 形容詞及助動詞 第二章 形容動詞 第三章 存在詞 업스(無シ)及잇스(有) 第四章 動詞及助動詞 第五章 形容詞及動詞の練習 第六章 助動詞
한어연구법	第四章 動詞 第五章 形容詞 第六章 助動詞 第七章 助辭
한어통	第二編 語辭 第五 動詞 第六 形容詞

『한어문전』에서는 장 제목을 ‘형용사’나 ‘동사’로 하지 않고 ‘형용사와 조동사’ 또는 ‘동사와 조동사’라고 하였는데, 조동사를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이들의 활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기술을 통해 ‘조동사’가 하나의 품사로 분류

18) “동사를 기술하는 장에서 조동사를 기술한 것은 조동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말(語)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동사와 조동사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동사를 설명할 때에 조동사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한어문전』: 75쪽).

되었으면서도 용언과 체언에 부속되는 상당히 독특한 범주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사와 조동사를 모두 품사로 인정한 점에서 주시경, 김두봉, 심의린, 박승빈 외 20세기 초기의 한국인의 문법서에서 조사와 어미를 품사로 인정한 것과 같이 분석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조동사를 단독으로 기술하고 있는 장은 ‘제3편 용언’의 ‘제6장 조동사’이며, 총 5절로 이루어져 있다. 1절에서는 조동사의 정의와 분류, 2절과 3절에서는 1종 조동사의 정의와 그 분류, 4절에서는 제2종 조동사의 쓰임,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그 외의 조동사로서 ‘듯ㅎ’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어연구법』의 조동사 장은 총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조동사의 성질에 대하여 먼저 기술하였는데, 조동사의 정의, 결합 정보(동사, 명사, 형용사), 종류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하의 절에서 10종의 조동사 ‘終止、等級、過去未來、疑問、命令、能力、推量、希望、打消、詠嘆’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어문전』에서는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또다시 그 아래에 시제와 높임, 법과 상을 하위 기술하고 있는 반면, 『한어연구법』에서는 층위의 구분 없이 나열하고 이들 각각을 하나의 종류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두 책의 조동사 부분의 세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의 조동사 목차

한어문전	한어연구법
第六章 助動詞	第六章 助動詞
第一節 助動詞の定義及種類	第一節 助動詞の性質
第二節 第一種助動詞	第二節 終止の助動詞
第三節 第一種助動詞の働	第三節 等級の助動詞
其一 体言及用言の時	第四節 過去、未來の助動詞
其二 敬称及謙称	第五節 疑問の助動詞

第四節 第二種助動詞の働 第一 動詞の法 一 平叙法 二 指定法 三 推量法 四 希望法 五 義務法 六 能力法 七 伝聞法 八 完了未完法 九 半語法 十 對卑人法 第二 動詞の相 一 通常の相 二 使役の相 三 受身の相 第五節 爾他の助動詞	第六節 命令の助動詞 第七節 能力の助動詞 第八節 推量の助動詞 第九節 希望の助動詞 第十節 打消の助動詞 第十一節 詠嘆の助動詞
---	---

『한어문전』에서 조동사는 ‘제1종 조동사와 제2종 조동사, 여타의 조동사’로 하위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제1종 조동사는 ‘根助動詞’로서, 모든 품사에 부속하여 그 의미를 완성하는 詞’라고 하며, 제2종 조동사는 ‘일본어의 소위 조동사에 매우 닮아서, 주로 용언에 부속하여 그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 詞’라고 정의하고 있다(『한어문전』, p.127). 또한 각 조동사의 변화에 대하여 제1종 조동사는 조사의 성질을 띠어서 그 변화도 활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반면, 제2종 조동사는 제1종 조동사를 취해(혹은 또 별도로 조사를 취해) 그 의미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가고 십소’의 ‘십’이 제2종 조동사이고, ‘소’는 제1종 조동사라고 예를 들었다. 여타의 조동사로는 ‘듯ㅎ’ 하나뿐인데, 이것은 비교의 조동사로 ‘같이(如シ)’의 뜻이다.¹⁹⁾

제1종 조동사는 다시 제1류와 제2류로 나뉘는데, 제1류 조동사는 ‘중지태 조동사’이고 제2류 조동사는 ‘연체태 조동사’이다.²⁰⁾ 제2종 조동사

19) 같은 형태가 추량의 조동사도 되는데 차이점은 추량의 의미인 경우 연체태에 어떤 시제든 쓸 수 있지만, 비교의 조동사일 때에는 현재 시제만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한어문전』, p.167).

는 형용사, 형용동사, 동사의 법(法)과 상(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동사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동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형용사에 대한 쓰임은 동사의 법(法)으로 다룬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동사의 법은 ‘동사의 표현 방법(動詞の云ひ表はし方)’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이 매우 다양하여 망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두드러진 종류에 한정하여 다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동사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은 총 10가지로 ‘平敍法, 指定法, 推量法, 希望法, 義務法, 能力法, 傳聞法, 完了未完法, 半語法, 對卑人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對卑人法’의 기술 뒤에 ‘위의 8법 외에 명령법, 금지법은 이미 전 장에 설명했고, 이들 외에 더 정세하게 분석하면 여러 종류의 서법이 있겠지만 생략한다’는 말이 있다.²¹⁾ 앞서 든 법은 10가지인데 무슨 이유로 八法이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자가 법이라고 직접 기술하지 않았어도 법이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언은 체언 장에서, 형용사와 형용동사, 동사는 동사 장 아래에서 ‘疑問法’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상(相)은 ‘동사와 그 속하는 체언의 관계를 이르는 것’이라고 하여 앞서 말한 태나 법에 비하여 비교적 그 문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 종류의 상을 제시하고

20) 여기에서 말하는 ‘태(態)’는 ‘Voice’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활용태(活用態)’에 가깝다. 『한어문전』에서는 형용사와 동사 아래에 각 절로 ‘終止態, 中止態, 連體態, 連動態(동사에만 있음), 連形態, 名詞態, 未然態, 既然態, 命令態, 禁止態’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각 절에서 어근에 조동사나 조사를 연결한 후에 의미를 완전하게 나타낸 형태를 ‘태’라고 설명하였다. 주로 활용한 형태를 합쳐 ‘중지태’나 ‘연체태’ 등으로 부르지만 ‘활용태’라고 지칭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형용사 아래 ‘제4절 형용사 활용의 규칙’에서 ‘活用態を比較するに’라는 부분에서 쓰인 것을 참고할 수 있다.

21) 以上八法の外命令法禁止法は既に前章に絮説したり。是等の外猶精細に分斷すれば諸種の敍法あるべけれども省略せり。(『한어문전』 155쪽)

있는데, ‘通常の相’과 ‘使役の相(或は主動の相)’, ‘受身の相(或は被動の相)’이다. 사역은 다시 직접 사역과 간접 사역으로, 수신은 통상의 피동과 사역의 수신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상(相)은 태(態)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조동사의 정의와 분류, 그 역할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한 표이다.

〈표 4〉『한어문전』 조동사의 종류

第一種 助動詞	정의	根助動詞로서, 모든 품사에 부속하여 그 의미를 완성하는 詞
	종류	제1류 종지태 조동사 제2류 연체태 조동사
	구실	체언과 용언의 시제 표현 경청과 겸칭 표현
第二種 助動詞	정의	일본어의 소위 조동사에 매우 닮아서, 주로 용언에 부속하여 그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 詞
	구실	법 표현(平敘法, 指定法, 推量法, 希望法, 義務法, 能力法, 傳聞法, 完了未完法, 半語法, 對卑人法) 상 표현(통상의 상, 사역의 상, 수신의 상)
爾他の 助動詞	종류	비교의 조동사 ‘듯하’

『한어연구법』에 기술된 10종의 조동사는 층위 구분 없이 기술되었지만, 문장종결법(의향법), 시제, 높임법, 서법(mood), 부정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종지의 조동사에서는 앞에 오는 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에 따라 나누었고, 이를 다시 받침이 없는 단음어와 받침이 있는 복음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높임법을 대등어, 대상어, 대하어의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시제를 현재격, 과거격, 미래격으로 기술하였다. 이후 다른 문장종결법으로 의문, 명령, 영탄의 조동사를 기술할 때는 앞에 오는 말의 종류나 음 외에 높임법의

등급과 시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서법의 경우에는 능력의 조동사, 추량의 조동사, 희망의 조동사 3가지를 세웠지만, 이 중에서 희망의 조동사 외에는 일본어 문법의 조동사 종류에 맞추어 이에 대응하는 말을 제시했을 뿐 사실 한국어에 해당 조동사는 없다. 마지막으로 부정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조동사를 제시하였는데, 동작 부정의 ‘아니’ 또는 ‘안’, 불능의 ‘못’, 금지의 ‘말’ 또는 ‘마’가 그것이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5〉『한어연구법』 조동사의 종류

관련 문법범주	조동사의 종류	세부 기술 내용
문장종결법(의향법)	終止の助動詞	동사/형용사/명사에 붙는 것 단음어/복음어에 붙는 것
	疑問の助動詞	(위의 내용에 등급과 시제를 추가하여 기술함)
	命令の助動詞	
	詠嘆の助動詞	
높임법	等級の助動詞	대등어, 대상어, 대하어
시제	過去・未來の助動詞	현재격, 과거격, 미래격 반과거, 전과거
서법(mood)	能力の助動詞*	한국어에 능력의 조동사는 없음 복합사 ‘슈가 잇’을 사용
	推量の助動詞*	무겁게 추량하는 말: ‘터이’ 원래 명사 가볍게 추량하는 말: ‘뜻ㅎ(듯ㅎ)’ 명사+동사, ‘가 보’의문의 조동사+동사 (동사/형용사/명사, 단음어/복음어, 등급, 시제 와 같이 기술함)
	希望の助動詞	‘시프’
부정법	打消の助動詞	동작을 그대로 부정하는 것: ‘아니’, ‘안’ 불능의 뜻이 있는 것: ‘못’ 금지의 뜻이 있는 것: ‘말’(마)

IV. 조동사의 기술 양상 대조

여기에서는 먼저 각 책에서 조동사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내용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대조해 보고자 한다.

1. 『한어문전』의 조동사 기술 양상

조동사와 관련된 문법범주의 기술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체계 내에서 조동사의 서술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조어법에 관여하고 있는 조동사에 대한 설명이고, 둘째는 조동사의 하위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조어법에 대한 기술이란 명사가 조동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3편 용언’의 ‘제1장 형용사와 조동사’ 아래 ‘제1절 형용사의 정의 및 종류’에서는 형용사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한어문전』 형용사의 종류

	형용사의 종류	조어 방법	예
1	純粹韓語の形容詞		입분山
2	轉成形容詞	漢語 + 助動詞 ‘ㅎ(ナル)’	寂寞흔山
3		體言 + 形容詞 ²²⁾ ‘다운(ラシキ), ‘시러운(ラシキ)’	사네다운人物
4		漢語 + ‘시러운’ ²³⁾	異常시러운나라
5		特種形容詞 + 助動詞 ‘로운’	식로운物件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어문전』에서 형용사를 분류한 기준은 조어 법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근과 조동사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유어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형용사가 있는 반면, 고유어(韓語)나 한어(漢語)의 어근에 다른 의미의 조동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전성 형용사로 4종이 있다.

『한어문전』에서 조동사가 기술된 부분을 살펴보면, 조동사는 형용사를 만드는 조어에도 관여하고, 또한 그 의미를 맺어서 문장성분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²⁴⁾ 현대문법으로 호환해 보면, 파생접미사로서의 기능과 어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의 쓰임새인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 조동사의 기능을 비중 있게 인식하였으므로 장 제목도 ‘체언과 조동사’, ‘형용사와 조동사’, ‘동사와 조동사’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는 조동사를 떼어내고는

22) 여기에서는 형용사라고 하였지만, 본문의 46~47쪽, ‘변격 형용사’ 절 부분에서는 ‘形容助動詞’라고 기술하였다. 이하의 기술을 살펴볼 때, 형용사보다는 조동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23) 이때의 ‘시러운’은 바로 위의 3번째 ‘시러운(ラシキ)’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러운’과 같고, 오직 형용사로 만들 때만 쓰이는 조동사라고 하였다(『한어문전』 47쪽)

24) 반면 동사의 경우는 조동사 ‘ㅎ(ナル)’가 아니라 동사 ‘ㅎ(爲)’를 부속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사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형용사와 같이 ‘순수 동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말로부터 전성하여 동사가 된 것과 한어의 동사인데, 이 한어의 동사에는 동사 ‘ㅎ’가 결합되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의 표와 같다. 형용사에 쓰인 ‘ㅎ’와 동사에 쓰인 ‘ㅎ’는 모두 파생접미사이지만 여기에서는 『한어문전』의 기술에 따라 조동사에서는 배제한다.

동사의 종류		예
1	純粹動詞	꽃을보시오. 우리집에와요.
2	他語より轉成せる動詞	工夫를도호어호요.
	漢語の動詞 + 動詞 ‘ㅎ(爲)’	漢文을工夫호시오. 길을往來한다.

형용사나 동사를 논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 조동사의 쓰임을 정리하는 ‘조동사’ 장에는 ‘형용사와 조동사’ 장에서 기술된 조어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어 조동사의 전모를 망라하지 못하였다. 이외에 형용사를 이루는 ‘ㅎ’를 조동사로, 동사를 만드는 데 쓰이는 ‘ㅎ’를 동사로 나누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각주 24 참조). 이는 조어 방식에 따라서 명칭을 붙였다기보다는 ‘ㅎ’와 결합하고 난 뒤에 생성된 말의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 ‘なる’는 조동사로서의 용법이 있지만, ‘する’는 동사로서의 용법밖에 없는 점이 한국어 문법을 기술할 때도 참고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조동사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1종과 2종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종 조동사에는 다시 제1류 종지태 조동사와 제2류 연체태 조동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때와 경칭, 겸칭을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종은 법과 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동사의 정의에 따르면 1종은 연체태이든 종지태이든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고, 2종은 의미를 더하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2종은 어떤 뜻이 첨가되고 그 뒤에 다시 1종 조동사로 의미가 맺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이어지는 절에서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정의 후 그 이하의 절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1종은 시제(時)를 담당하여, 시제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의 종지태와 연체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대과거이며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존재사 ‘잇스, 업스’에 따라 그 변화가 달라진다. 완료상을 시제 안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과거의 완료도 과거와 구별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경칭(敬稱)에서는 제1종 조동사 위에 경의(敬意)를 나타내는 조동사 ‘시’ 및 그 활용형을 두고, 또 결코 용언의 활용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겸칭(謙稱)은 상대높임법 종지태 어미를 시제와 결합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칭과 겸칭을 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음 절에서부터 제2종 조동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평서법에서만 제1종 조동사를 취하여 구성한다 했고, 다른 법에서는 이러한 말이 없으니 모두 2종 조동사로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높임과 낮춤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조동사가 공경어의 경우에는 1종 조동사로, 반말과 대비인어(對卑人語)의 경우에는 2종 조동사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여타의 조동사로 기술을 마치고 그 뒤에 ‘동사의 상 및 법의 표’를 덧붙였는데, 여기에서는 법과 상, 태(종지태, 연체태), 시제에 따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半語法,’과 ‘對卑人法’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1종 조동사와 2종 조동사의 분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어연구법』의 조동사 기술 양상

『한어연구법』의 동사와 형용사 부분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태(態)’와 ‘어미(語尾)’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태’란 동사에 있어 동작의 의미를 각양으로 나타내거나 다른 말을 연결하기 위해 그 어기(語氣)에 여러 태도를 만드는데 이를 동사의 태라고 칭하였다(『한어연구법』 66쪽). 그리고 형용사의 용법은 동사와 대동소이하지만 동사보다 간단하다고 보았다(위의 책, 110쪽). 앞서 살펴본 『한어문전』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태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한어문전』이 동사의 종지태와 연체태를 통하여 조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하여 기술한 것과 같이 『한어연구법』에서도 동사에서 기술한 종지태와 명령태를 조동사 장에서도 다루고 있다.

두 책 모두 동사 부분에서는 조동사와 결합하여 이룬 태를 기술하였고, 조동사 부분에서는 동사에 기술된 내용을 조동사를 중심으로 그 법(法) 또는 용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어문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제와 등급의 조동사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어연구법』에서 과거, 미래의 조동사를 다룬 절에서 “과거, 미래의 조동사는 동사와 종지의 조동사(‘다, 오, 소’의 류)의 사이에 삽입하여, 종지의 조동사의 위의 말이 되는 것인데, ‘앗, 엇, 겿’ 어느 것이나 복음어가 되므로, 그 아래의 말 되는 종지의 조동사에는 ‘오’의 류(오, 옵니다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134-135쪽)”고 한 것으로 보아 시제의 조동사와 종지의 조동사를 따로 각각 떼어서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어연구법』에서 조동사를 제시할 때에 특징적인 점은 동사나 형용사와 조동사가 결합된 형태의 예에서 조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오른쪽에 점을 찍어 어느 부분이 조동사인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점의 색이나 모양을 달리하여 구분하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과거의 조동사는 오른쪽에 ○, 종지의 조동사는 ●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킷 [○] 다	킷 [○] 습니다	킷 [○] 소	먹 [○] 엇다	먹 [○] 습니다	먹 [○] 엇소	보 [○] 앗다	보 [○] 앗습니다	보 [○] 앗소	過去格
大きかつた	大きいでした	大きいでした	食べた	食べました	食べました	見た	見ました	見ました	

(그림 1) 『한어연구법』 과거의 조동사 예

등급의 조동사는 실은 종지의 조동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종지의 조동사 부분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대등어(對等語) 현재격’의 ‘오, 소’만 다루었다. 그리고 ‘대하어(對下語), 대상어(對上語)’는 다음 절 등급의 조동사에서 따로 다루었고, ‘과거격, 미래격’은 그 다음 절 과거, 미래의 조동사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지의 조동사 부분에서 언급함으로써 종지와 등급, 시제의 연관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약간 있지만 ‘능력의 조동사, 추량의 조동사, 희망의 조동사’를 다룬 것이 『한어문전』과 같다. 한편 『한어문전』에서는 ‘명령태’와 ‘부정식(否定式)’, ‘의문법’에 조동사가 사용됨에도 조동사 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용언 기술 장에서만 다루었지만, 『한어연구법』에서는 조동사 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경우 동사나 형용사에서 조동사의 쓰임이 있다면 모두 조동사 장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어문전』에서 부정식은 부사법과 조동사법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으나 『한어연구법』에서는 둘 모두 조동사로 다루었다.

『한어문전』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은 연체태와 사역, 수신과 관련된 기술이다. 『한어문전』에서 이들을 조동사의 용법으로 기술하여 연체 조동사나 사역, 수신의 조동사로서 설명하였다. 반면 『한어연구법』에서는 연체태를 형용태로 기술하고 이는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각각 조동사와 어미로 다르게 보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제시하고 있는 형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든’을 현재과거 또는 반과거, ‘ㄴ/은’을 순수과거 혹은 전과거로 기술한 것은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 또한 『한어문전』에서는 형용사에서 현재에 쓰인 ‘ㄴ/은’을 과거에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표 7〉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의 관형사형 어미 기술 비교

	『한어문전』의 연체태 조동사			『한어연구법』의 형용태 어미	
동사	는	현재	는	현재격	
	든	현재과거	든	과거격	반과거
	ㄴ/은	순수과거	ㄴ/은		전과거
	ㄹ/을	미래	ㄹ/을	미래격	
형용사	ㄴ/은	현재	ㄴ/은	현재격	
	ㄴ/은	과거	든	과거격	
	든	현재과거	ㄹ/을	미래격	
	ㄹ/을	미래	-	-	

『한어연구법』에서는 한국어에는 사역과 수신의 조동사가 없고, 여러 가지 말을 조립하여 이러한 뜻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를 포함한 전체를 어근으로 보아 어근에 사역과 수신 뜻이 있는 동사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사역의 경우 ‘시키, 게 ㅎ, 라고 ㅎ’를 이용하여 그 뜻을 만들고, 수신은 ‘맞나(逢ふ), 당(當る), 맞(合う, 迎へる, 打たれる)’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3. 『한어통』의 조동사 기술 양상

『한어통』은 다른 두 책과 달리 조동사를 단독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한어통』에서 ‘제2편 어사(語辭)’의 ‘어사의 분류’ 부분을 보면, ‘명사(名詞), 수사(數詞), 대명사(代名詞), 동사(動詞), 형용사(形容詞), 부사(副詞), 접속사(接續詞), 감동사(感動詞), ㄱ爾波, 조동사(助動詞)’의 1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조동사는 ‘이것은 이 책의

동사, 형용사의 절에서 아울러 설명한다'고 덧붙인 것과 같이 단독으로 '조동사'를 다룬 장은 없다. 다만 목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아래에서 '동사의 어근과 조동사의 첨가(動詞の語根と助動詞の添加)'와 '형용사의 어근과 조동사의 첨가(形容詞の語根と助動詞の添加)'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조동사의 형태를 제시하기보다 조동사의 발음에 따라 나타나는 어근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어근 뒤에 조동사가 붙을 때 어떤 형태로 어근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 모두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모음동화의 관습에 의해 어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음화 습관에 따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동사의 첫 어절에 어근의 받침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 위의 두 책과 유사하게 자동타동(自動他動), 상(相), 칭(稱)²⁵⁾, 직설법(直說法), 시제(時), 의문법(疑問法), 명령법(命令法), 연용법(連用法), 접속법(接續法), 연체법(連體法), 삽입법(插入法), 부정법(不定法), 부정어(否定語), 어미에 의한 각종 표정법(語尾によりてなさる、各種の表情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세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위의 두 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기술할 때에 조동사의 개념을 사용한 데 반해 『한어통』에서는 어미라는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 많다.

『한어통』에서 조동사와 관련된 기술이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설법 시제(時)에서 처음 보이는데, 조동사라고 직접적으로 기술된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조동사 'ㄴ'뿐이지만, 뒤에 접속법에서는 '엇'을 과거 조동사로, '려'를 미래 조동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넓혀서 보

25) 여기에서 말하는 칭은 '존칭(尊稱)'을 뜻한다. 높임의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시'와 어휘에 의한 높임, 즉 '特殊の語'를 다루었다.

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류를 조동사로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어문전』과 『한어연구법』에서 조동사로 보았던 종지태 혹은 종지의 조동사를 이 책의 직설법 기술 부분에서는 어미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어통』에서는 같은 형태를 어미라 하기도 하고 조동사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책 곳곳에서 어미라고 불렀던 ‘다, 라, 느냐, 논가, 어라’ 등이 206쪽에서는 확실히 조동사로 기술된 예들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어미의 의미는 ‘語의 尾’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용법에서도 어미 ‘어’를 다루면서 ‘어’의 형태가 아닌 ‘올마’, ‘가르쳐’, ‘썸’ 등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로 주석을 달고 ‘+는 어미 첨가 예를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 장의 앞부분에 기술된 ‘동사의 어근과 조동사의 첨가’ 부분을 뜻하는 것이다. ‘어미 첨가’와 ‘조동사의 첨가’가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어문전』에서 미연태, 기연태를 이루는 것을 조사의 역할로 기술하였다면, 『한어연구법』에서는 이를 접속태 조사로 기술하고 있는데, 『한어통』에서는 이러한 류의 일부를 조동사라고 보았다. 『한어문전』에서는 미연태로 조사 ‘면’과 그 과거형으로 ‘스면’, 기연태로 조사 ‘죽’을 제시하고 있다. 『한어연구법』에서는 접속태 조사를 먼저 ‘(上) 어미가 필요 없는 것, (中) 어미가 필요한 것, (下) 종지어를 사이에 두는 것’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대국어 문법으로 보면 어미에 속하는 형태들이다. (上)으로는 ‘거든, 드릿도, 거니와, 거나, 다가, 고, 면, 니, 나, 러, 라고, 면서’, (中)에는 어미 ‘느’이 필요한 ‘데’, 어미 ‘ㄴ, 은’이 필요한 ‘즉, 들’, 어미 ‘아, 어’가 필요한 ‘서, 도, 야’가 있다. 마지막으로 (下)에는 ‘마는, 고’가 있는데 종지어 뒤에 연결되는 것으로 (上)에서의 ‘고’와 다르다. 『한어통』에서는 접속법에서 이와 같은 형태

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동사가 접속법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접속법은 비교적 많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인지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빈칸으로 두고 어미라고만 기술된 부분도 그대로 정리하였다. 『한어통』에서 제시한 형태들은 앞의 두 책에서 제시한 것들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여기에서도 앞의 두 책과 같이 조사에 해당하는 테니오히로 접속법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 ‘서, 기에, 도(구어로 ‘야’)'가 그것인데, ‘서/서, 도, 야’의 목록이 『한어연구법』과 같다. 두 책에서 다 조사 혹은 테니오히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어문전』에서는 ‘서(テ)’를 연동태로 보고 있는데, 연동태 역시 동사와 동사를 잇는다는 점에서 접속법, 접속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표 8〉 『한어통』의 접속법

접속법	형태	종류
(1) 연접으로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고	어미
	다가	어미
	서	(연용법+)테니오히
	면서	조동사
(2) 단순하게 어구를 여열하는 것	고	조동사
	며	어미
(3) 원인, 이유가 되는 어구를 연접하는 것	(으)니	조동사
	ㄴ즉	과거조동사+조동사
	서	(연용법+)테니오히
	기에	부정법+테니오히
	고로, 까닭으로, 적문에	(연체법+)
(4) 사리의 상반되는 구를 연결하는 것	(으)나	조동사
	려니와, 거니와, 려마는, 건마는, 마는	조동사

(5) 정황을 말하는 어구를 연결하는 것	더니	조동사
	(으)ㄴ죽	어미
	니까	조동사
	논딕(구어: 논테), (으)ㄴ딕	조동사
(6) 가설의 어구를 연결하는 것	(으)면(구어: 며느)	조동사
	엇으면, 엇더면	과거조동사+조동사
	거든	조동사
	도(구어: 야)	(연용법+)테니오하
	더래도, ㄹ지래도	조동사
	(으)ㄴ들	조동사

한편 연체법에서 ‘ㄴ, (으)ㄴ, (으)ㄹ, 더+ㄴ’을 조동사라고 본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 이들은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뒤에 체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어연구법』에서는 이를 어미로 보았고, 『한어문전』에서는 연체 조동사라고 기술하였다. 삽입법의 경우에는 테니오하 ‘고’ 앞에 종결어미 계열의 조동사의 쓰여 그 기능을 완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어문전』의 조동사에 기술된 ‘전문법(傳聞法)’과 같지만 여기에서는 ‘고’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고 전체의 쓰임으로 설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역과 수신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한어통』에서는 사역을 ‘사역상(使役相)’, 수신을 ‘소상(所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먼저 ‘소상’은 어미 ‘이’의 첨가에 의해 표현되는데, 어근 말음에 따라 ‘이’일 경우 생략되고, ‘ㄹ’나 ‘ㄹ’일 때는 ‘ㄹ니’, ‘ㄹ’나 ‘ㅁ’의 경우 ‘기’, ‘기’, ‘ㅁ’, ‘ㅁ’(받침)으로 끝날 때에는 ‘히’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사역상은 소상과 같은 어미를 첨가하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한어문전』, 『한어연구법』, 『한어통』에서 보는 관점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각 책에 기술된 조동사의 문법적 기능 대조

지금까지 세 권의 책에서 조동사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각 책에서 다룬 조동사의 문법적 기능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종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문법서에서는 모두 조동사에 하나의 품사로서의 자격을 주고 명사, 동사, 형용사에 대하여 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로 세웠다. 그러나 문법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아직 나아가지는 못했다. 내용 면에서는 문법범주에 따라 구조화하기보다 형태에 따라 나열하는 구성을 보였고, 형식 면에서는 세부적인 문법 형태들을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분석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전의 문법서에서 문법적 설명이 거의 없는 데에 반해 다양한 문법범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범주와 기능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시제(時), 문장종결법(의향법), 높임법, 서법(mood), 활용형, 부정법’이다. 시제는 세 책 모두 ‘현재, 과거, 미래’의 3분법으로 보았다. 문장종결법은 공통으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을 기술하였고, 『한어연구법』에서는 영탄의 조동사를 따로 제시하였으며 『한어통』에서는 기타의 표정법으로 감탄을 제시하였다. 높임법의 경우, 『한어문전』에서는 제1종 조동사에 ‘敬稱’의 조동사 ‘시’와 ‘謙稱’의 조동사를 시제에 따라 현재 ‘□니다, 읍니다/이□니다, 이읍니다, 습니다, 소이다’, 과거 ‘ㅅ습니다, ㅅ소이다’, 미래 ‘깃습니다, 깃서이다, 리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종 조동사에서 ‘半語法’, ‘對卑人法’를 기술하였는데 이는 해체와 해라체 정도의 등급에 해당한다. 높임의 등급은 ‘恭敬語, 普通語, 訶敬語, 半語, 對卑人語’의 5등급으로 나

누었다. 『한어연구법』에서는 등급의 조동사에 ‘對等語, 對上語, 對下語’의 3등급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각각 하오체, 합쇼체, 해라체에 해당한다. 『한어통』에서는 ‘어미에 의한 각종 표정법(語尾によりてなせる各種の表情法)’에서 높임법을 제시하였는데 총 4등급으로 볼 수 있다. 동등한 사람에 대한 경어로 ‘오’ 또는 ‘소’, 직설법 ‘다’,²⁶⁾ 의문법 ‘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경어로 직설법 ‘외다, 스외다’, 의문법 ‘오닛가, 스오닛가’, 친한 친구 사이에서 ‘ㄴ, 데, 나, 던가’와 의문법 ‘ㄴ’, 경어 없는 표시법으로 연용법 형태의 어미를 제시하였고 여기에 ‘요’를 붙여 경어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각각 해체와 해요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활용형은 대체로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와 관련된 활용태를 의미한다. 세 책 모두 일본식 문법의 영향으로 ‘종지태, 중지태, 연동태, 연형태, 형용태, 명사태, 기연태, 접속태, 명령태, 금지태, 숙어태’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용어는 일본 문법의 것으로 뒤에 오는 요소나 그 형태의 기능과 관련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동법과 피동법은 모든 책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한어문전』에서는 이를 조동사의 기능으로 설명한 반면, 『한어연구법』에서는 어휘적 의미에 따른 실현이나 조사와 동사 등 여러 말의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고, 『한어통』에서는 단지 어미로 기술한 점이 다르다. 『한어통』에서는 삽입법 안에 인용법 외에 ‘의심’이나 ‘상상’의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동사도 설명하였지만, 『한어문전』에서는 인용법만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세부 조동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합당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

26) 본문에는 ‘나’로 되어 있지만, 직설법 ‘다’의 오식으로 판단됨(『한어통』, 293쪽).

〈표 9〉 조동사와 관련된 문법적 기능 비교

	한어문전	한어연구법	한어통
공통점	시제(時), 문장종결법(의향법), 높임법, 서법(mood), 활용형, 부정법		
차이점	태(사동법, 피동법) 인용법		삼입법

V. 결론

지금까지 『韓語通』, 『韓語文典』, 『韓語研究法』에서 쓰인 ‘助動詞’에 대하여 각 책의 전체적인 문법서의 체계 내에서 비교·대조하였다. 세 권의 책에서 정의한 조동사는 형식적으로는 체언과 용언에 붙어 활용하는 요소이며, 의미적으로는 앞에 오는 말을 완성하고 의미를 더하는 요소이고, 문법적으로는 시제(時), 문장종결법(의향법), 높임법, 서법(mood), 부정법을 실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조동사가 어휘적 의미를 지닌 어근이나 단어에 결합하여 ‘활용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다양한 문법 범주를 아울러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 조동사를 사용하여 활용 체계를 기술하였던 문법서 사이에서도 크게는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 기술에 있어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적이다.

조동사라는 개념은 근대적 방법으로 국어문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이해하고 형태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후 문법범주에 관한 연구가 형태를 넘어서서 문법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동사를 이루던 범주와 실현 요소도 세분되

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최현배(1937/1961: 210-211)에서는 조동사를 독립한 씨갈래로 보지 않으며 움직씨의 한 갈래로 보아 ‘도움 움직씨(補助動詞)’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동사의 모든 용법을 다 포함한 것은 아니다. 조동사는 후에 보조동사 혹은 보조형용사로 이름이 이어졌고, 이를 제외한 다른 형태들은 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분류되었다. 다른 방향으로 서정수(1994/1996/2006)에서는 ‘서술 보조소(predicative auxiliary)’라는 문법범주를 설정하여 시제, 상, 서법 등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들을 기술하였다. 20세기 초의 조동사 기술에서 문법 체계상 다소 거칠게 기술된 부분을 문법범주에 따라 체계를 세웠다. 비록 체계는 다를지라도 개념 설정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서술 보조소를 용언의 부속물로 여기지 않고 용언(어간)과 양립하는 독립 범주로 보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와 같이 ‘조동사’라는 범주는 현대 국어 문법까지 변형과 계승을 거치며 한국어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에 영향을 미친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지면 제한으로 인해 『韓語通』, 『韓語文典』, 『韓語研究法』에서 기술된 조동사의 개별 형태와 문법 기능에 대해서 다룰 수 없었지만, 같은 형태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시기 한국인에 의한 문법 연구와의 대조, 이후 조동사로 기술된 형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역시 살펴볼 때 조동사의 기술이 국어문법사에서 갖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경민,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민수, 『國語文法論 研究』(歷代文法大系 1-98), 탑출판사, 1960.
- 김석득,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2009.
- 김은주, 「近代日本の文法學における助動詞の成立」, HERSETEC 4(2), 名古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2010, pp.59-76.
- 김주상,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의 문법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서정수, 『국어문법』, 집문당, 1994/1996/2006.
- 오오이 히데아끼, 『20세기 초 한국어 문법 형성사 연구 - 일본 문법과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영민, 「개화기 일본인 간행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일고찰 『한어통(韓語通)』의 품사 설정과 문법 항목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2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a, pp.371-392.
- _____, 「개화기 일본인의 한국어 연구 - 高橋 亨저 『한어문전(韓語文典)』의 문법 사항을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제44집, 반교어문학회, 2016b, pp.59-82.
- 정세환, 「朝鮮語學習書『韓語通』の言語學的一考察 - 動詞についての記述を中心に -」, 『日本近代學研究』 제2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0, pp.29-61.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자료〉

- 유길준, 『필사』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1), 탑출판사, 1897~1904 추정.
- _____, 『필사』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105), 탑출판사, 1904.
- _____, 『필사』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2), 탑출판사, 1905.
- _____, 『유인』조선문전』(歷代文法大系 1-3), 탑출판사, 1906.
- _____, 『유인』대한문전』(歷代文法大系 1-4), 탑출판사, 1904~1907 추정.
- _____, 『대한문전』(歷代文法大系 1-6), 탑출판사, 1909.
- 최광옥, 『대한문전』(歷代文法大系 1-5), 탑출판사, 1908.
- 高橋亨, 『韓語文典』(歷代文法大系 2-33), 탑출판사, 1909.
- 寶迫繁勝, 『韓語入門』(歷代文法大系 2-26, 27), 탑출판사, 1880.

_____, 『日韓善隣通語』(歷代文法大系 2-28, 29), 탑출판사, 1880.

安泳中, 『韓語』(歷代文法大系 2-31), 탑출판사, 1906

藥師寺知籠, 『韓語研究法』(歷代文法大系 2-34), 탑출판사, 1909.

前間恭作, 『韓語通』(歷代文法大系 2-32), 탑출판사, 1909.

Abstract

An overview of the Jodongsa(auxiliary verb) in Korean
Grammar Books in the Early 20th Century

- Focusing on 『韓語通』·『韓語文典』·『韓語研究法』
written by Japanese authors -

Shin, Hyo-ryun

This research aims to contrast the concept of ‘auxiliary verb(助動詞)’ and its grammatical function in Korean grammar books written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Japanese authors, including 『韓語通』(1909), 『韓語文典』(1909), 『韓語研究法』(1909).

This was because the concept of auxiliary verbs described at the time was closely related to Japanese grammar studies influenced by Western grammar studies. The auxiliary verb defined in these books was morphologically conjugating noun, verb and adjective, completing preceding words, adding meaning, and performing grammatical function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he auxiliary verb according to each grammar book. The definition of auxiliary verb itself was so comprehensive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description details of grammar. Thus, grammar elements described as auxiliary verbs gradually became divided and different.

Key Words : Korean grammar books in the early 20th century, auxiliary verb(助動詞), 『韓語通』(1909), 『韓語文典』(1909), 『韓語研究法』(1909)

신효련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생

전자우편 : h-ryun@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